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0 5.6.7.8 통권 제73호 www.ksm.or.kr

BaB캠페인 2010 북한 어린이돕기 캠페인
'BaB이 희망이다'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표지사진 “시선”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 물자가 개성으로 가는 날(10. 8. 17 도라산CIQ)



경색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교착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로 인해 남북관계는 교착단계를 넘어 침몰직전의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남북한은 모두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경색되었는가? 남북한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의 잘못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야기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일방적인 대북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인 북핵문제는 해결은 고사하고 2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는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보수진영의 적극 지지로 출범한 정부이다. 따라서 자연히 과거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보다는 교정하려고 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도 대북정책 분야의 공약으로 비핵개방정책을 제시하여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해서 자국에 대해 호의적이면 보상을 하고 악의적 행동을 보이면 징벌하는 연계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북핵문제와 병행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연계시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수준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이나 인도적 차원의 민간단체의 지원사업도 대폭 축소시켰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필요한 경우 중단시키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여 북한을 압박했다.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도 최소화시켰고 이것도 천안함 침몰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두 전임정부와 북한이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6.15와 10.4선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선언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북한을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보다는 국가(안보)우선주의적 패러다

상대방의 선 변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강경노선은 결국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켰고 그것은 곧 크고 작은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순항하던 때에도 안보상 민감한 지역에서는 남북 간에 여러 번 충돌사건이 일어났었다.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건도 이러한 와중에 발발한 것이다.

목차

칼럼	03	경색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BaB캠페인	06	'BaB이 희망이다'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나눔기행	10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찾아 나선 길
	12	고려정보통신 막내 사원의 연변방문기
방북	14	남과 북이 함께 모기를 잡는 일
	15	밀가루에 실어 보낸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
평화나눔센터	16	평화나눔센터 소식
인턴	17	우리민족은 값진 기회와 희망 - 이지옥 소중한 배움 - 이승미
연재	18	전 주민의 생존 터로 변한 북한의 장마당(시장)
사업일지	20	한 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자명단	22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0년 5+6+7+8월호 통권 제73호 | 발행인 |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10년 8월 31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영수, 김정곤,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윤장현, 이수구, 이용선,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 강영식

임을 적용하여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를 복원해 보려는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한의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강압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동안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의사를 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가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교류협력과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 북한 역시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6.15와 10.4선언을 남한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비핵개방 3000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복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의 선 변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강경노선은 결국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켰고 그것은 곧 크고 작은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순항하던 때에도 안보상 민감한 지역에서는 남북 간에 여러 번 충돌사건이 일어났었다. 하물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는 그만큼 예상하기가 어려운 우발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건도 이러한 와중에 발발한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유달리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비판해 온 지난 정부의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에 경도된 대북인식, 지나친 대북 저자세, 조급한 성과주의 등은

상당 부분 시정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악화되었다. 비핵개방 정책은 선거공약으로서의 적실성이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보다는 2차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핵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선결조건 때문에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사업까지도 정체시키고 있다.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압정책도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강압의 대상이 강압을 주도하는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험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강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이 가할 위협과 보복의 최대치를 감수할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공멸을 의미하는 정면충돌(전쟁)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해결책은 협상을 통해 타협하면서 공동이익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 3000정책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5.24 담화가 남북관계의 복원과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문제를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적 해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핵 억제력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핵 개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체제생존이라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핵)와 맞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차원이 서로 다른 가치를 등가 교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제1당사자는 구조적으로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절대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공격주체가 북한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북한이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다.

물론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 순간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천안함 침몰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다. 그러나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한, 북핵 문제와 천안함 침몰사건을 우리의 뜻대로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모든 남북관계 현안과 무조건 연계시키면 사실상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다. 어찌면 남북관계는 그냥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무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북한 핵문제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 논의의 주도권도 남북한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당장 정부 간 수준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한다

면 적어도 기업차원의 경제교류사업이나 인도적 차원의 민간단체의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만이라도 조속히 재개시켜야 한다. 역사적으로 되돌아 볼 때, 남북한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일 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남북한은 현재 서로 유감이 많다. 만나지 않으면서 반목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유감을 풀고 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남한의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 ●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 3000정책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5.24 담화가 남북관계의 복원과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가를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0 북한 어린이돕기 캠페인 'BaB이 희망이다'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올해 초 시작한 북한 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가 많은 후원자님들의 참여속에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1,300명 어린이에게 첫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지원 대상이 46개 유치원과 1개 고아원 3,640명의 어린이로 늘어 매주 급식용 빵과 콩우유가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 중견기업의 대표에서 어린 학생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한마디를 실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갈릴리교회
갈릴리교회의 전 교인은 북한의 어린이를 입양하여 내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지는 못하지만 한끼 식사라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한명이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를 입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 ● 박중호(수원명성교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경기노회(노회장 최충현 목사)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 박중호 목사)에서 유치원 급식지원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노회소속 성도들이 한끼 급식으로 마련한 성금입니다. 지난 6월10일 성금으로 마련한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연길을 방문 하였고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어 고맙습니다.



● ● 박남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얼마전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단연 화두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경무상급식'의 실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한민족 통일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BaB 캠페인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 승언스님(석왕사 총무스님)
바른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는 석왕사에서는 전 신도 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석왕사 부설기관 등이 함께 「2010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나마 우리의 손길이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를 염원합니다.



● ● 이수구(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우리 모두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져서 밥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낳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캠페인이 확산되어 통일조국의 미래인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박선오(고려정보통신 대표)
얼마 전 북한 큰물 피해로 물에 잠긴 신의주 지역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의주는 고려정보통신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육아원과 고아원 어린이 350명에게 정기적으로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부터는 생활이 더욱 어려운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치원 어린이 300명에게 매일 빵과 콩 우유가루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눔이 절실 합니다. 향후에도 고려정보통신은 사회와 더불어 번영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을 실천하기위해 북한 어린이에 대한 나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 ● 박정숙, 김나눔 가족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 아이들이 진정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 ● BaB캠페인 후원자명단 - 유치원 결연 후원

단체명	금액	후원아동수	후원유치원
갈릴리교회	5,000,000	500명	온성읍유치원 330명 풍리대가정세대 170명
대한치과의사협회	1,000,000	100명	상화구유치원 100명
백병원(백낙환)	1,000,000	100명	고성농장1유치원 48명 명세선리유치원 47명 주원구유치원 5명
석왕사	5,000,000	500명	주원탄광1유치원 162명 주원농장1유치원 78명 종성구유치원 230명 상화구유치원 30명
이은	1,000,000	100명	미산유치원 32명 황파리유치원 32명 주원농장3유치원 36명
인천광역시	100,000,000	1,500명	삼봉구유치원 112명 등 24개유치원 1,500명
(주)고려정보통신	3,000,000	300명	온성읍농장유치원 110명 종축장유치원 70명 왕채산리유치원 117명 주원구유치원 3명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600,000	60명	풍서리유치원 60명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000,000	100명	금사리유치원 52명 온성읍철도유치원 48명

※ BaB캠페인 개인 후원자 명단은 지면관계로 16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인천광역시와 온성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체결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희망저금통'

'희망'으로 전달된 **가능**



후원자님들의 나눔으로 시작된 '2010 북한 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가 지난 5월 7일 첫 지원을 시작으로 8월 현재 함경북도 온성군 39개 유치원, 1개 고아원 3,428명에게 매주 급식용 빵과 콩우유가루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까지 지원현황과 방문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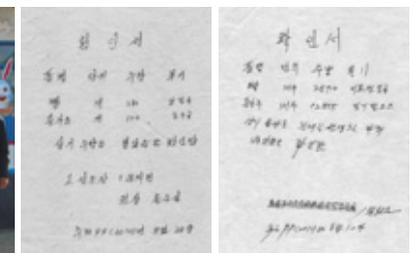
지원현황

번호	지원날짜	지원물품	지원대상
1	5월 7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2	5월 14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3	5월 21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4	5월 28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5	6월 4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6	6월 10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7	6월 17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8	6월 24일	빵, 콩우유가루 9,000개	11개소 어린이 1,298명
9	7월 2일	빵, 콩우유가루 11,400개	15개소 어린이 1,900명
10	7월 15일	빵, 콩우유가루 11,400개	15개소 어린이 1,900명
11	7월 22일	빵, 콩우유가루 11,400개	15개소 어린이 1,900명
12	7월 29일	빵, 콩우유가루 11,400개	15개소 어린이 1,900명
13	8월 6일	빵 25,710개 / 콩우유가루 12,855개	40개소 어린이 3,428명
14	8월 12일	빵 25,710개 / 콩우유가루 12,855개	40개소 어린이 3,428명
15	8월 20일	빵 25,710개 / 콩우유가루 12,855개	40개소 어린이 3,428명
16	8월 27일	빵 25,710개 / 콩우유가루 12,855개	40개소 어린이 3,428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7월 27일 오전 8시 30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결식에는 영담 상임공동대표,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이용선 공동대표 등 사무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대북지원체제 조치 후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나선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라며 "인천시와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길 희망하며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등이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함경북도 온성군 24개 유치원 1,500명 어린이들에게 1억원 상당의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학년 4반 31번, 임00" 주먹만한 저금통 옆에 주인을 확인하는 스티커가 큼지막이 붙어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내꺼니 건들지마~"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저금통은 지난 8월 25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 변선애 선생님)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모아 보내온 저금통입니다. 아이들이 한학기 동안 모아 보내온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저금통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마음, 북한 어린이에게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보내온 저금통은 총 20개, 147,300원입니다.



왼쪽 풍리대가정세대 방문 가운데 상화구유치원 방문 오른쪽 물자를 전달 후 받은 확인서(인수증) 맨위 향당리유치원 전경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찾아 나선 길

후원자님과 함께 떠나는 나눔기행 첫 번째 이야기 - (주)고려정보통신

여행이란 만남과 인연의 좋은 기회이자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눔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살짝 더해보면 어떨까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일제강점기 이주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배어있는 곳입니다. 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회령시와 근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남쪽에서 보내는 북한 어린이를 향한 마음이 희망으로 전달됩니다. 다음 아님 2010 북한 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 를 통해 매주 빵과 콩우유가루가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15일, 각각 3박 4일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연변에 후원자님과 떠나는 나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온성군 4개 유치원 3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주)고려정보통신(대표 박선오) 임직원 49명과 함께 떠난 '나눔기행'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왼쪽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도문대교에서 북한 온성군을 뒤로 기념촬영 ① 북한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빵을 현지 생산공장에서 시식하는 참가단 ② 연길 빵공장에서 생산된 지원용 빵과 포장된 모습 ③ 빵을 만드는 모습 ④ 연변 동불사조선족소학교를 방문 학용품을 전달하는 박선오 대표 ⑤ 조선족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막대빵을 만드는 참가단 ⑥ 용정중학교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단 ⑦ 백두산을 방문하여 천지폭포 앞에서 기념촬영 ⑧ 북한 온성으로 가는 빵을 실은 트럭을 보고 있는 참가단



필자 - 사진 뒷줄 맨 오른쪽

고려정보통신 막내 사원의 연변방문기

이요셉 고려정보통신 홍보부

고려정보통신에 입사해 홍보부에 근무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이번 중국 연변여행에 각 매장의 점장님들과 단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말단 사원인 나로서는 참 운이 좋은 편이다. 이번 여행, 기대가 앞선다.

첫째날(5월 26일) : 처음이라는 설레임

아침 일찍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2시간쯤 지나서 중국 연길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연길 여행은 처음이다. 언제나 처음은 사람을 설레이게 한다. 멀리서 보이는 간판에는 한국말이 정말 많다. 아마도 조선족이 많은 도시라서 그런 것 같다. 보라색 버스를 타고 '라징 호텔'로 이동한다. 숙소는 깔끔하다. 3일간 동고동락 할 룸메이트는 정철영 대리님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중국은 음식이 많기로 유명하고 더 맛있으리라는 기대가 앞섰다. 그러나 처음 맛본 음식이 이상하다. "웁! 맛이 왜이래" 일행 대부분이 같은 반응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빵공장을 방문하였다. 고려정보통신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이곳에서 만들어진 빵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의 말씀처럼 나만 잘 사는게 아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에서 소리없이 지원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회사와 사장님의 노력에 감탄과 숙연함을 동시에 느꼈다. 다소 허름해 보이는 빵공장에서 한 장의 현수막이 먼저 맞는다. "고려정보통신 직원들의 왕림을 환영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현수막이다. 빵공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연길에서는 제일 큰 빵공장이라한다. 빵공장을 둘러본 후 2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후원을 하고 빵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빵과 음료를 먹어 보았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빵이라고 한다. 고소한 맛과 달콤한 음료수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로 충분히 보였다. 숙소로 돌아와 호텔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였다. 사장님께서 진행한 간담회는 이번 여행의 의미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많은 이야

기들을 주고받았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을 먹기위해 찾은 식당은 점심 보다 좋아 보인다. 저녁이라 술도 함께 마셨다. '병천맥주'라는 연변 맥주와 사과향(?)이 나는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음식은 점심보다는 괜찮았다. 공기밥을 국에 말아먹고 새우 튀김도 먹었다. 일행들도 점심식사 때 보다는 좋은 환경과 맛으로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숙소에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첫날의 여운을 달랬다.

둘째날(5월 27일) : 조선족 아이와의 만남

도문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이다. 도문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변계선'이라고 써있는 다리로 갔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갈수 없는 현실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선족 소학교로 이동하였다. 주위는 모두 시골이었고 허허벌판이다. 학교에 도착한 우리를 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했다. 하나 둘씩 전교생이 모였다. 순수해보이고 착해 보이는 학생들. 나는 북한아이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아이들은 중국말도 쓰지만 우리나라말도 잘하는 '조선족'이다. 1학년부터 나와서 장기자랑을 보여주었다. 한국말로 동화책읽기, 노래하기, 춤추기, 웅변하기 등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만하며 살아가는 내가 너무 초라해보였다.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았다. 회사에서 미리 준비한 컴퓨터와 학용품, 교육용품들을 기증하였다. 순수한 아이들이 소학교에서 장래의 희망을 꿈꾸며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풍경들을 보니 마음이 땡땡리는 듯 상쾌하다.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운동주 시인의 생가다. 안내하는 사람의 설명을 통해 운동주시인이 삶과 생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눈으로 체험해보았다. 늘 국어책에서만 보던 운동주,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셋째날(5월 27일) : 아~ 백두산~!

새벽부터 일어나 두꺼운 겨울옷을 챙겨 입고 백두산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4시간의 버스여행 끝에 도착

한 백두산! 버스에 내려서 걸어서 30분! 걸어가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20분, 짐차와 봉고차를 타고 백두산 정상까지 20분을 이동 한후 백두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눈덮힌 백두산은 매우 추웠다. 난생 처음 온 백두산이라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함성을 지르며 온몸으로 만끽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백두산이라니...! 날씨는 추웠지만 몸은 춥지 않았다. 행복한 백두산 여행.

저녁늦게 도착하여 늦은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간 곳은 북한 식당이다. 음식으로 나온 갈비, 쌀밥, 김치, 튀김 등 중국음식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 였다. 정말 맛있었다. 북한에서 온 여자들의 공연도 보았다. 북한 사람이 부르는 '반갑습니다', '아침이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들으며 우리들은 재밌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보냈다. 연변에서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각자 하나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중국 연변에서의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5월 28일) : 느낌 그리고 못다한 말

3일 동안 머문 호텔을 뒤로한 채 다시 도문으로 향했다. 오늘은 첫날 보았던 빵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날이어서 빵을 실은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다. 중국에서의 까다로운 통관과정을 마치고 빵을 실은 트럭은 북한을 향해 가고 있다. 눈에서 트럭이 사라질 때 까지 우리 모두는 손을 흔들었다. 고려정보통신의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과정을 보면서 나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연길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제 우리의 중국 일정은 모두 끝이 났다. 아쉽고 몸도 피곤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깨닫는 여행이 되었다. 비행기에서 보는 중국은 정말 기대하였다. 그리고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온 듯한 아쉬움 속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에서 느낀점은 정말 많았다. 첫째는 우리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위대함, 그리고 다같이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둘째는 우리들은 우리보다 잘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처럼 살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연변에서 본 조선족 동포들의 삶에서 겸손과 절약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글로 다하지 못한 느낌이 많다. 이 느낌은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중국 연변에서의 3박 4일로 간직하고 싶다. 🇰🇷



개성봉동역에 방역물자 하역후 기념촬영



개성으로 가기전 방북대표단의 기념촬영

남과 북이 함께 모기를 잡는 일



개성에서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옮기는 중

8월 17일, 개성을 통해 말라리아 방역물자 전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8월 17일, 정부의 5. 24 조치이후 처음으로 개성육로를 통해 말라리아 진단키트 12만개, 유충살충제 1톤, 모기향 60만개 등 총 4억원 상당의 올해 제1차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꾸준히 추진해온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의 일환입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 중 2/3가 북한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의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지난 2007년 북측에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을 제안하여, 2008년 3월 12일 북측과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16일, 제1차 방역물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3회에 걸쳐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약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민간인 말라리아 발생이 51.7%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와 함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매년 평양 또는 개성에서 남북한 말라리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올해 4월 29일, 개성에서 개최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평가회를 통해 확인된 북한 지역의 말라리아 감염 및 치료 실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역물자는 개성공단밖 봉동역에서 북측에 전달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내 말라리아 전문가인 박재원 가천의대 교수의 물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밀가루에 실어 보낸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



개성으로 가기위해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기중인 밀가루를 실은 트럭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대표단 9명, 밀가루 300톤 전달을 위해 개성 방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박경조 고문(대한성공회 대주교), 인명진 상임공동대표(갈릴리교회 목사), 박남수 공동대표(동학민족통일회 대표회장)가 포함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지난 8월 27일, 밀가루 300톤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표단 9명은 방문 전 임진각에서 '밥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라는 기념 행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밀가루 300톤 지원을 계기로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북한 쌀 보내기 등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북한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남북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른 뒤 10시 밀가루 300톤을 실은 트럭과 함께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밀가루 300톤(2억5천만원 상당)은 개성시(개풍군포함), 황해북도 장풍군, 금천군, 황해남도 배천군, 청단군, 연안군 등 총 6개 지역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평화나눔센터 소식

제 44회 정책포럼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전망'



평화나눔센터는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류석진 교수(서강대 정외과)를 모시고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44회 정책포럼을 가졌습니다.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



평화나눔센터는 지난 6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존브라우저 부총재보를 모시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을 가졌습니다.

제 45회 정책포럼

'독일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



평화나눔센터는 지난 7월 8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베르너 캠펠 소장을 모시고 '독일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 45회 정책포럼을 가졌습니다.

BaB캠페인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마음을 북한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

정기후원	김진현 5,000	천연희 30,000	다물홍방 100,000
주원구유치원	김태평 10,000	하세연 20,000	류연석 10,000
강신형 10,000	김해경 10,000	한원택 50,000	박정숙 30,000
권혁민 20,000	노승일 10,000	한창균 50,000	배명용 40,000
김경란 20,000	도규현 30,000	허경기 30,000	상록수녀원 30,000
김나눔 10,000	문 민 5,000	현종스님 10,000	정정옥 30,000
김명진 10,000	문성규 2,000	홍현기 10,000	
김정원 10,000	문석규 1,000	황성우 50,000	주원탄광2유치원
김진식 10,000	박미경 20,000		곽해진 10,000
김현수 5,000	박성림 10,000	용남리유치원	박경호 30,000
문정숙 40,000	박은영 20,000	김금순이호준 20,000	박중원 20,000
문성권 30,000	박재완 10,000	김기령 10,000	박현석 10,000
문성숙 20,000	박정식 30,000	김민재 30,000	박형준 10,000
문주성 10,000	박종근 10,000	김성건 20,000	변은경 10,000
박계용 20,000	박종우 10,000	김상수 20,000	서해란 10,000
박나정 25,000	박표균 10,000	김인선 10,000	신삼복 5,000
박상일 10,000	배인기 20,000	김종관 10,000	양영아 10,000
송명옥 20,000	서희순 10,000	김종하 10,000	오태정 10,000
송춘섭 10,000	송민선 20,000	김주환 50,000	이일양 10,000
윤여두 100,000	송용석 10,000	김한정 10,000	임원빈 5,000
윤자영 10,000	심재원 10,000	박미경 10,000	정혜숙 30,000
윤정현 10,000	심재정 10,000	박요순 20,000	최윤실 10,000
이경진 10,000	안효진 30,000	박재규 100,000	
이병춘 20,000	양규(양승봉) 10,000	방석환 10,000	상화농장2유치원
이선장 10,000	양화식 10,000	심재구 10,000	김부도 20,000
이수정 10,000	양효정 10,000	안규식 10,000	김양숙 20,000
이용선 100,000	오동일 30,000	안동호 10,000	윤해정 30,000
전범권 10,000	오승현 10,000	안민식 10,000	조성희 10,000
정금나 10,000	위대현 20,000	안석희 10,000	
정 민 20,000	위은량 20,000	양어가스틴성 10,000	일시후원
정중렬 20,000	유영광 10,000	윤지현 10,000	주원구유치원
정장수 50,000	유승희 10,000	오민준 10,000	나영진 나영석
정화인 10,000	유연미 10,000	이 규 10,000	1,200,000(10)
최수희 30,000	윤기홍 10,000	이영동 10,000	오소영 120,000(1)
한덕섭 100,000	윤지현 10,000	이일영 50,000	이덕희 200,000(2)
	이리나 5,000	이현주 10,000	
남양노동자유치원	이병진 10,000	임교근 10,000	남양노동자유치원
강대현 20,000	이선정 5,000	임선택 30,000	이상준 100,000(1)
강병태 20,000	이선호 20,000	정해인 10,000	
강은향 30,000	이영선 10,000	제해성 10,000	용남리유치원
강준호 50,000	이정기 10,000	제해준 10,000	옥용호 100,000(1)
고유민 50,000	이정미 10,000	좋은터교회 100,000	이한택 100,000(1)
고인해 20,000	이정훈 10,000	진양숙 20,000	최양욱 100,000(1)
곽정란 10,000	이제현 10,000	최태희 10,000	하태성 120,000(1)
권영운 20,000	이종학 10,000	한하늬 10,000	함택영 120,000(1)
권익산 10,000	이지은 10,000	허 실 10,000	
김경표 10,000	이춘도 10,000	허인용 10,000	풍서리유치원
김경하 10,000	이현재 10,000	허준용 10,000	김광국 150,000(1)
김광국 9,000	임문희 10,000	황승숙 10,000	김 진 120,000(1)
김만호 20,000	장범식 10,000	황인선 10,000	김광국 160,000(1)
김선희 10,000	정동현 10,000		
김순보 50,000	정성경 20,000	풍서리유치원	주원탄광2유치원
김연옥 50,000	정성희 5,000	구종우 10,000	김동천 100,000(1)
김영재 10,000	정수준 5,000	박계운 10,000	진명배 300,000(3)
김용민 5,000	조은상 30,000	박세진 20,000	
김용재 10,000	조은희 20,000	서정환 100,000	수원명성교회
김용화 5,000	조정아 20,000	정태은 10,000	7,000,000
김우철 20,000	조함미 10,000	최성범 20,000	
김정미 10,000	조형준 10,000		
김정은 10,000	진관스님 5,000	산성구유치원	
김진경 20,000	채우혁 10,000	김명신 10,000	(* 괄호안은 후원이동수

우리민족은 값진 기회와 희망



이지욱
경희대학교 정치외교 1

소중한 배움



이승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 4

대학 입학 후 첫 학기를 마치고 처음으로 NGO 단체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 교내의 Summer Program을 통해 알게 된 Civic-Service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이하 우리민족)이라는 대북 인도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1달 동안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 긴 단체명을 들었을 때는 이름이 정말 정직하다고 느꼈다.

평소 북한에 대해서 평범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우리민족은 값진 기회와 희망을 주었다. 덕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깊어졌다. 대북지원 단체라는 것을 처음에 듣고 악화된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인턴을 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민족의 끊임없는 대북지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모두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점에 감동받았다. 특히 얼마 전에 북한에 말라리아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이러한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더욱이 말라리아 지원이 끊임없는 정부와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종교인모임의 대북 밀가루 300t 지원 행사 때는 직접 현장에서 북한에 어떻게 물자들이 반출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덕분에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직접 가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 된 줄 알고 있었다.)

우리민족에서 맡은 일은 백서 자료목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우리민족이 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알 수 있었고 그 일들이 글로벌 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NGO단체의 긍정적인 면들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총장님, 소장님, 부장님, 간사님 그리고 다른 인턴분들 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

정치학도인 나는 여러 강의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와 체제에 대한 공포감만 불어났고, 책에 쓰여진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주민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북에 있는 동포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곤 하였다. 대학생 인턴으로 7월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에 힘을 보태기로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아슬아슬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민족 또한 북한에의 지원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민족은 묵묵히 할 일을 해냈다. 우여곡절 끝에 북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지원했을 때, 고생은 사무실 식구들이 다 했지만, 내 마음이 다 뿌듯하고 즐거워 하루 종일 뉴스만 틀어놓았다. BaB 캠페인과 밀가루 지원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악조건 속에서도 성사시켜나가는 우리민족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고맷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정치와 체제에만 열중하여 있을 때 고통 받는 북한 동포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민족 가족들과, 후원해주시는 따뜻한 분들에게서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해주신 우리민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

전 주민의 생존 터로 변한 북한의 장마당(시장)

정민숙 새터민, 가명

해방 직후부터 존재해 왔던 북한의 장마당은 정전 후 농업협동화를 실시되면서 주춤해졌다. 그러다가 장마당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자 당시 김일성 주석은 국가가 아직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일용품과 부식물을 넉넉히 공급 못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농민시장은 나쁠 것이 없다며 개인이 부업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닭공장을 많이 짓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면 농민시장에서 팔고 사는 일은 자연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장마당은 몇몇 노인들이 돼지새끼나 토끼, 계란, 콩, 깨, 씨앗을 비롯한 채소 몇 가지를 파는 보잘 것 없는 시장이었다. 이를 보여준 북한영화가 바로 “딸에게 판 강아지”이다.

자그마한 장마당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부터이다. 80년대 중반 중국의 효요방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북한 땅에 밭을 붙이고 사는 화교들의 모국방문이 활성화되고 중국에 친척 있는 북한주민들도 국경통행증과 여권으로 중국방문이 허용되어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심지어 연고가 없는 주민들도 돈이면 중국방문이 가능했고 국경지역의 주민들은 중국 땅을 이웃집 드나들듯 했다. 이때부터 회령과 신의주의 국경지역에서는 중국 상품이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공업상품을 드러내놓고 팔 수 없게 통제하여 청진시에서는 40~50대 아줌마들이 몸에 감추거나 자기 집으로 데려가 팔았다. 당시 제일 인기 있는 중국 상품은 이불이었다. 함경도지방에서 딸을 둔 집은 이불 3채는 해줘야 시집보내는 줄로 알았다. 중국 이불 등이 추세다보니 딸 셋을 키운 집은 백화점을 차릴 정도로 혼수 용품을 사야할 것이 많았다. 점차 중국에서 해군사프와 뼈짜지(양복감), 여성웃, 변색안경, 담배, 주패를 비롯한 다양한 잡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진수남장마당’은 염소와 토끼, 강아지 등 집짐승은 보기 힘들었고 중국산 부엌세간과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까지 등장했다. 동시에 중국에 들어가는 이면수와 오징어, 수산물이 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다.

90년대의 대량아시는 자그마한 장마당을 전 도시주민의 생존터로 만들었다. 당시 평양시의 12개 크고 작은 장마당은 지방보다 쌀이

나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이 거래되었다. 특히 송신장마당의 경우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서자 42개의 장마당으로 늘어났는데 2003년에는 장마당을 현대적인 종합시장으로 규모를 키워 전국적 범위로 확대했다. 평양시 통일거리의 종합시장은 국가가 앞장서서 만들었다. 시장 내 상점들에 철판으로 천장을 만들어 지붕을 씌우고 두꺼운 벽체를 세우는 등 시장내부는 난방시설까지 갖췄다. 청진시의 현대적으로 꾸러진 종합시장은 5천~1만㎡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크며 알곡과 남새상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가전제품전문점까지 들어섰다. 함경북도는 회령시와 라진선봉, 김책시에 3~5천㎡ 규모의 시장을 조성하고 모든 상인이 시장 안에서 장사하도록 하였다. 종합시장은 60여 개의 매장으로 꾸러졌는데 1개 매장에는 50명의 상인들이 한 조로 나누어 매대를 형성하였다.

마케팅을 이용한 의류 판매와 하트 모양의 가격표로 손님을 끄는 등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돋보였다.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광고도 등장하고 시장안에서는 모든 손님과 어린이에게 존칭어를 썼다. 곳곳에 수산물상점에는 동해에서 잡은 꽁치와 가자미, 오징어 등 신선한 해삼물이 진열됐다. 시장중심의 상거래는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하면서 차츰 지역별로 특산물 전문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평성은 외국가전 상품과 경공업 상품, 나진선봉과 청진시는 수산물, 혜산과 무산의 국경연선지역은 약초와 각종 금속들이 주를 이루면서 유통되었다.

유통되는 상품도 지역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까지 등장했다. 시장 상인들 속에서는 컬러TV와 냉장고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자 물건보다 돈이 없어 상품을 사지 못할 정도였다. 중개상들에 의한 몇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체계

가 형성되었다. 해삼물인 경우 국가가 아니라 동해에서 평양 시장까지 냉동한 채로 유통하는 민간업자들이다. 4~5명이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군 단위나 기업소의 화물차를 임대하여 장사에 나서는 현상이 증가하자 지역 간 물자 이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공급되는 물품도 증가하여 지역별 시장의 가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기 돈으로 배나 트럭을 국가 기관에서 임대받아 돈을 버는 사장님도 출현했다. 중고 버스나 자동차를 들여와 특정 기업소나 자동차사업소의 명의를 빌려 자본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합영형태의 개인 사업가도 늘어났다. 개인이 식당을 경영하거나 신발과 비누 등 생필품과 시멘트 블록을 비롯한 건설용 자재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재력 있는 개인에게 상점을 위탁 운영시키는 수매상점이 도시중심에서 지방의 중, 소도시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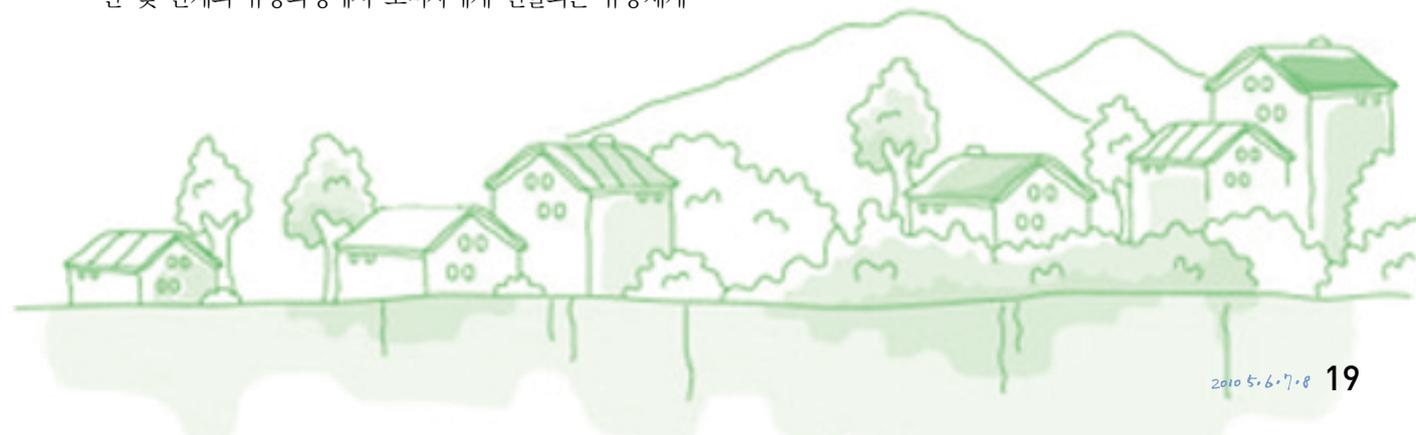
가구류와 전자제품, 의류, 식품,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데 주로 외제중고품과 값싼 중국산이다. 상점주인은 재일교포나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외화벌이 일꾼들의 가족이 자기 자산으로 운영한다. 직접 일본에서 중고 전자제품이나 의류를 수입해오기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나 밀수품을 받아 판매하기도 한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통제해왔고 적절한 시기에는 무기로 활용하는 시장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주민들 간 상거래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장사 수완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많은 신흥부자들이 생겨났다. 돈과 권력의 결합에 따른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사회구조가 북한전체에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구류와 전자제품, 의류, 식품,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데 주로 외제중고품과 값싼 중국산이다. 상점주인은 재일교포나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외화벌이 일꾼들의 가족이 자기 자산으로 운영한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따라 보세요

5월

7일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2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1차, 도문-온성)

14일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2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2차, 도문-온성)

19일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 어린이 889명에게 340만원 상당 급식 및 생필품 지원(삼합-회령)

21일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2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3차, 도문-온성)

24일
제4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전망
• 발표 : 류석진 서강대 정의과 교수



25일
후원자님과 떠나는 나눔기행(1차, 3박 4일)
• (주)고려정보통신 임직원 23명
• 중국연변 역사유적지, 백두산 방문 및 온성 물자지원 참관

9일
후원자님과 떠나는 나눔기행(2차, 3박 4일)
• 수원 명성교회 3명
• 중국연변 역사유적지, 백두산 방문 및 온성 물자지원 참관



4일
• 사무처 워크숍(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
•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4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5차, 도문-온성)

6월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2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4차, 도문-온성)

11일
•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4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6차, 도문-온성)
• 상임위원회 회의(래식턴호텔)



15일
후원자님과 떠나는 나눔기행(3차, 3박 4일)
• (주)고려정보통신 29명
• 중국연변 역사유적지, 백두산 방문 및 온성 물자지원 참관

16일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
• 주제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
• 발표 : 미국국제개발처(USAID) 존 브라우저 부총재보



17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기자회견(프레스센터)

8월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4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7차, 도문-온성)



22일
•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민협의 입장 발표(프레스센터)
•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 어린이 889명에게 340만원 상당 급식 및 생필품 지원(삼합-회령)

24일
함경북도 온성군 11개 유치원 어린이 1,300명에게 24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9,000개 전달(BaB캠페인 8차, 도문-온성)

30일
남포시 남포산원에 해열제, 진통제 등 기초의약품 24종(9천만원상당) 지원(인천-남포)

29일
함경북도 온성군 15개 유치원 어린이 1,900명에게 28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11,400개 전달(BaB캠페인 12차, 도문-온성)



27일
'인천광역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체결(인천시청)

15일, 22일
함경북도 온성군 15개 유치원 어린이 1,900명에게 28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11,400개 전달(BaB캠페인 10차/11차, 도문-온성)

6일
제 45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독일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
• 발표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베르너캠페터 소장

2일
함경북도 온성군 15개 유치원 어린이 1,900명에게 280만원 상당 급식용 빵 및 콩우유가루 11,400개 전달(BaB캠페인 9차, 도문-온성)

30일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 어린이 889명에게 350만원 상당 급식 및 생필품 지원(삼합-회령)

6일, 12일,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40개 유치원 어린이 3,428명에게 630만원 상당 급식용 빵 25,710개, 콩우유가루 12,855개 전달(BaB캠페인 13차/14차/15차, 도문-온성)



17일
개성지역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및 방북(4명, 개성육로)



27일
• '종교인모임' 밀가루 300톤 지원 및 대표단 방북(9명, 개성육로)
• 함경북도 온성군 40개 유치원 어린이 3,428명에게 630만원 상당 급식용 빵 25,710개, 콩우유가루 12,855개 전달(BaB캠페인 16차, 도문-온성)

7월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5월, 6월, 7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녁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4월

(주)대우파마텍	20,000
(주)디에이블커머스	100,000
(주)리치스톤	10,000
(주)모아나	20,000
(주)삼성파워일렉트릭	20,000
(주)세진산업개발	20,000
(주)신도데이터통신	10,000
(주)지남종합건축사	20,000
(주)창이엔지	30,000
(주)코리츠 노스훈	100,000
(주)한얼	50,000
강복조	5,000
강경중	20,000
강남준	10,000
강달호	10,000
강동완	20,000
강문규	50,000
강선미	5,000
강성부	10,000
강성구	10,000
강승현	20,000
강 신	10,000
강원호	20,000
강익범	10,000
강인호	100,000
강정미	5,000
강정용	10,000
강재원	10,000
강태호	20,000
강필희	5,000
강해경	10,000
강혜영	10,000
경진TRM	20,000
고권석	20,000
고기철	10,000
고명진	10,000
고봉근	10,000
고석주	10,000
고세광	10,000
고수석	10,000
고승일	20,000
고승진	10,000
고영록	10,000
고이석	30,000
고창훈	30,000
고희갑	10,000
곽연실	10,000
곽 현	10,000
구국모	10,000
구수영	10,000
구영주	10,000
구은경	10,000
구정희	20,000
구중모	10,000
국민호	20,000
권병오	10,000

권보미	10,000
권숙희	5,000
권승언	10,000
권영노	10,000
권오춘	10,000
권차현	10,000
권철성	20,000
권현진	1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금희식	30,000
길기관	10,000
길창배	10,000
김강민	30,000
김강훈	10,000
김경재	10,000
김경태	10,000
김경하	10,000
김경화	5,000
김계순	5,000
김관식	20,000
김광식	10,000
김광열	10,000
김광진	10,000
김구철	10,000
김규현	10,000
김근우	30,000
김금순.이호준	40,000
김금평	25,000
김기도	10,000
김기용	30,000
김기현	10,000
김기은	50,000
김기판	10,000
김길차	20,000
김길철	5,000
김나홍	5,000
김 당	10,000
김대성	30,000
김대영	10,000
김대영	5,000
김덕수	10,000
김도규	20,000
김동광	10,000
김동근	20,000
김동분	50,000
김동현	10,000
김동환	30,000
김민수	20,000
김민진	5,000
김민태	5,000
김명기	10,000
김미홍	10,000
김민근	10,000
김민성	10,000
김민재	10,000
김민성	10,000
김민재	10,000
김정환	30,000
김정희	10,000
김중갑	10,000
김중갑	20,000
김중구	5,000
김성근	20,000
김성득	20,000

김상범	30,000
김상수	10,000
김상식	10,000
김상운	5,000
김석진	10,000
김성항	5,000
김선명	5,000
김선창	10,000
김설자	10,000
김성봉	40,000
김성수	10,000
김성혜	5,000
김성숙	10,000
김성진	20,000
김성철	10,000
김성희	5,000
김소영	10,000
김소희	10,000
김수암	10,000
김순옥	10,000
김승훈	20,000
김양수	10,000
김영모	20,000
김영미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실	20,000
김영준	10,000
김영호	5,000
김완배	20,000
김용덕	30,000
김용현	10,000
김용희	5,000
김우영	2,000
김우전	10,000
김원국	10,000
김원경	5,000
김윤기	10,000
김은경	10,000
김은경	3,000
김은숙	5,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응상	10,000
김의근	10,000
김인선	10,000
김일성	100,000
김일환	10,000
김장연	5,000
김장훈	10,000
김재욱	5,000
김재혁	10,000
김재호	10,000
김정미	10,000
김정빈	10,000
김정수	5,000
김정순	10,000
김정화	10,000
김정환	30,000
김정희	10,000
김중갑	10,000
김중갑	20,000
김중구	5,000
김성근	20,000
김종문	20,000

김종순	10,000
김종식	30,000
김중현	20,000
김주영	50,000
김주학	10,000
김준석	20,000
김준현	100,000
김준수	10,000
김중호	30,000
김지선	20,000
김진백	10,000
김진현	10,000
김진현	9,000
김창근	10,000
김창연	10,000
김태석	10,000
김태소	20,000
김태경	10,000
김태경	10,000
김태경	10,000
김태화	5,000
김수암	10,000
김순옥	10,000
김승훈	20,000
김양수	10,000
김영모	20,000
김영미	10,000
김영수	10,000
김영실	20,000
김영준	10,000
김영호	5,000
김완배	20,000
김용덕	30,000
김용현	10,000
김용희	5,000
김우영	2,000
김우전	10,000
김원국	10,000
김원경	5,000
김윤기	10,000
김은경	10,000
김은경	3,000
김은숙	5,000
김은혜	10,000
김은희	10,000
김응상	10,000
김의근	10,000
김인선	10,000
김일성	100,000
김일환	10,000
김장연	5,000
김장훈	10,000
김재욱	5,000
김재혁	10,000
김재호	10,000
김정미	10,000
김정빈	10,000
김정수	5,000
김정순	10,000
김정화	10,000
김정환	30,000
김정희	10,000
김중갑	10,000
김중갑	20,000
김중구	5,000
김성근	20,000
김종문	20,000

민경기	20,000
민여경	10,000
민향석	10,000
민현주	10,000
박경관	10,000
박경국	5,000
박기호	20,000
박남용	50,000
박동용	10,000
박동우	5,000
박동호	50,000
박영기	10,000
박우영	10,000
박문송	10,000
박문식	30,000
박미란	10,000
박미하	10,000
박민선	50,000
박희성	10,000
박희선	10,000
박희진	10,000
김해중	5,000
김형성	10,000
김현철	10,000
김형중	5,000
김호일	20,000
김홍석	10,000
김효정	10,000
김희곤	20,000
김희중	10,000
나병만	10,000
나선길	100,000
나원영	20,000
남은우	20,000
나중문	20,000
남성돈	10,000
남서현	5,000
남정현	10,000
노관숙	10,000
노금호	10,000
노인선	20,000
노정환	20,000
노제승	10,000
노춘봉	5,000
노형래	10,000
노재영	10,000
류병욱	10,000
류용성	5,000
류이근	10,000
류현우	10,000
류현화	20,000
목주승	5,000
문경성	5,000
문근영	5,000
문근재	5,000
문미영	5,000
문성진	10,000
문수권	20,000
문용식	10,000
문정수	10,000
문주연	10,000
문 흥	10,000

박혜영	50,000
박희순	10,000
박희운	10,000
반치범	10,000
방재만	5,000
방준일	10,000
배대환	10,000
배근호	10,000
배동용	10,000
배소영	20,000
배수현	10,000
배은혜	10,000
배항란	20,000
백나서	10,000
변선애	20,000
봉미란	10,000
서광의채널	100,000
서광희	10,000
서기원	30,000
서동규	5,000
서동화	20,000
서명호	10,000
서영학	10,000
서옥주	20,000
석민경	10,000
선영수	10,000
선영숙	10,000
선근우	10,000
선석암	5,000
선수희	10,000
성열찬	10,000
손경찬	10,000
박소희	10,000
박수진	10,000
박 손	10,000
박순성	10,000
박혜스터	50,000
박영근	20,000
박영철	10,000
박이현	5,000
박은혜	5,000
박용권	20,000
박원규	10,000
박은하	5,000
박의용	10,000
박이현	20,000
박인숙	30,000
박인순	10,000
박재득	10,000
박재원	10,000
박정근	50,000
박정란	10,000
박정숙	10,000
박정우	10,000
박지훈	30,000
박지훈	20,000
박현미	10,000
박현철	10,000
박현근	10,000
박형중	30,000

심말선	10,000
심조원	10,000
심하림	10,000
심현주	10,000
심현희	10,000
심현희	10,000
안명화	20,000
안상화	5,000
안세봉	20,000
안승자	10,000
안약천	30,000
안영숙	5,000
안정식	30,000
안정훈	5,000
안종규	5,000
안종출	5,000
안준상	40,000
안형재	100,000
양관승	20,000
양근성	10,000
양문수	10,000
양미아	20,000
양미화	5,000
양순환	10,000
양우성	10,000
양윤정	2,000
양인보	20,000
양주용	10,000
양진선	5,000
양철찬	10,000
양희석	10,000
어용철	5,000
엄기철	10,000
엄용수	20,000
염 철	50,000
오계환	10,000
오영환	10,000
오만순	30,000
오문택	50,000
오선연	5,000
오성수	20,000
오세호	10,000
오소영	30,000
오수경	5,000
오수형	10,000
오준희	10,000
오창욱	10,000
오형석	20,000
오해근	5,000
이 선	10,000
이선규	10,000
이선주	10,000
이선화	10,000
이현숙	5,000
이현숙	100,000
이현우	50,000
이현주	20,000
이형식	143,000
이혜란	5,000
이혜옥	10,000
이혜원	10,000
이혜정	5,000

이승만	10,000
이승열	20,000
이승영	20,000
이승우	20,000
이승현	20,000
이아미	10,000
이애희	20,000
이언하	5,000
이 업	10,000
이영래	50,000
이영주	10,000
이영철	5,000
이영철	20,000
이영훈	10,000
이옥순	10,000
이용균	10,000
이용호	10,000
이우영	20,000
이은하	10,000
이원민	5,000
이원보	10,000
이원우	5,000
이윤상	5,000
이윤환	10,000
이은경	10,000
이은희	10,000
이응세	10,000
이인덕	10,000
이인배	20,000
이인수	10,000
이일선	10,000
이일영	50,000
이정백	20,000
이재학	10,000
이재희	5,000
이정세	10,000
이정수	10,000
이정숙	10,000
이정식	50,000
이정엽	10,000
이정주	10,000
이정희	5,000
이종근	20,000
이종규	10,000
이종영	10,000
이종우	10,000
이종동	10,000
이준희	10,000
이지영	10,000
이진석	30,000
이진우	10,000
이찬우	10,000
이병동	10,000
이상주	30,000
이상환	10,000
이상희	10,000

후원자 명단

장수필 5,000	권혁민 20,000	윤정현 10,000	강남준 10,000	김기원 10,000	김은희 10,000	류주현 5,000	박재만 5,000	안정훈 5,000	윤창원 10,000	이일영 50,000	장용훈 10,000	조신행 5,000	한영숙 10,000
장오식 10,000	김경란 20,000	윤지현 10,000	강달호 10,000	김기은 50,000	김응상 10,000	류현선 10,000	방준일 10,000	안중금 5,000	윤효철 20,000	이창백 20,000	장원석 10,000	조연희 5,000	한윤규 10,000
전기철 5,000	김경표 10,000	이경진 10,000	강동환 20,000	김기판 10,000	김익근 10,000	류화자 50,000	배대한 10,000	안중술 5,000	이강기 50,000	이재학 10,000	장윤진 5,000	조영삼 10,000	한진호 5,000
전병희 5,000	김금순, 이호준 20,000	이리나 5,000	강동우 50,000	김길사 20,000	김인선 10,000	박화화 20,000	배덕호 10,000	안준상 40,000	이강희 5,000	이재희 5,000	장준용 10,000	조영식 10,000	한창화 10,000
전한순 10,000	김나눔 10,000	이병진 10,000	강선미 5,000	김나홍 5,000	김일성 100,000	목주승 5,000	배동용 10,000	안광승 20,000	이경미 5,000	이정세 10,000	장형수 30,000	조영식 10,000	한진욱 5,000
정광래 5,000	김민호 20,000	이선장 10,000	강성부 10,000	김 당 10,000	김일환 10,000	문경순 5,000	배소영 20,000	안근성 10,000	이경재 10,000	이정수 10,000	장형수 30,000	조영진 10,000	한창현 5,000
정광수 5,000	김명진 10,000	이선정 5,000	강성구 10,000	김대관 10,000	김자현 50,000	문근영 10,000	배수현 10,000	안문성 10,000	이경희 10,000	이정숙 10,000	전미란 5,000	조윤 5,000	함용은 5,000
정기운 5,000	김민재 30,000	이수정 10,000	강승원 20,000	김대영 10,000	김정연 5,000	문근재 10,000	배은혜 10,000	양미아 20,000	이국림 5,000	이정식 50,000	전병태 10,000	조유근 10,000	허원종 10,000
정영학 5,000	김선희 10,000	이영선 10,000	강 신 10,000	김대영 5,000	김장윤 20,000	문미영 5,000	배향란 20,000	양미화 5,000	이규설 5,000	이정영 10,000	전성관 10,000	조승원 30,000	허은이 10,000
정명환 5,000	김연옥 50,000	이정기 10,000	강원호 20,000	김덕수 10,000	김정훈 10,000	문성권 10,000	백낙서 10,000	양순화 10,000	이근덕 30,000	이정주 10,000	전성희 10,000	조재호 10,000	함관승 10,000
정수범 10,000	김영재 10,000	이정미 10,000	강익범 10,000	김도규 20,000	김재광 5,000	문수정 20,000	변산애 20,000	양우성 10,000	이근태 10,000	이정희 5,000	전애숙 10,000	조정순 10,000	현소복 5,000
정인규 5,000	김용민 5,000	이정훈 10,000	강인호 100,000	김동광 10,000	김재욱 5,000	문용식 10,000	봉미란 10,000	양윤정 2,000	이근행 10,000	이종규 20,000	전영미 10,000	조승남 10,000	현윤수 10,000
정중원 20,000	김용재 10,000	이재현 10,000	강정음 10,000	김동근 20,000	김재철 10,000	문정숙 10,000	사량의재닐 100,000	양인보 20,000	이금수 20,000	이종규 10,000	전영일 10,000	조준혁 10,000	현윤식 10,000
정종원 10,000	김용화 5,000	이지문 10,000	강정음 10,000	김동분 50,000	김재혁 10,000	문정호 10,000	서기원 30,000	양주용 10,000	이기호 10,000	이종명 10,000	전영일 20,000	조종식 10,000	현윤실 10,000
정진철 5,000	김우중 20,000	이춘도 10,000	강재원 10,000	김동현 10,000	김재호 10,000	문주연 10,000	서동화 20,000	양진선 5,000	이기화 10,000	이종무 10,000	전윤용 10,000	조태현 5,000	현윤애 10,000
정해림 5,000	김정미 10,000	이현재 10,000	강태호 20,000	김동환 30,000	김 정 10,000	문 훈 10,000	서영호 10,000	양해준 10,000	이길호 5,000	이종민 10,000	전일순 10,000	조한민 10,000	함종운 40,000
정희선 10,000	김정원 10,000	임문희 10,000	강필희 5,000	김만수 20,000	김정미 10,000	민경기 20,000	서봉은 5,000	양희석 10,000	이남철 5,000	이종석 30,000	전정수 10,000	조한범 10,000	호영진 15,000
정홍귀 10,000	김정은 10,000	장범식 10,000	강혜경 10,000	김민진 5,000	김정빈 10,000	민향수 10,000	서영학 10,000	어용철 5,000	이대식 10,000	이종안 20,000	전성희 5,000	조 현 5,000	홍기호 10,000
조기용 20,000	김정화 10,000	정광민 100,000	강태영 10,000	김민태 5,000	김정수 5,000	이한숙 10,000	서옥주 20,000	엄우성 20,000	이태호 10,000	이종수 20,000	전종수 20,000	조현영 10,000	홍기호 10,000
조봉관 10,000	김진경 20,000	정동혁 10,000	강정학 10,000	김병기 10,000	김정순 10,000	박경관 10,000	서정숙 10,000	염규현 10,000	이덕형 5,000	이종주 5,000	전진희 10,000	조현호 20,000	홍관희 5,000
조성택 20,000	김진현 5,000	정 민 20,000	강정민 20,000	김미홍 10,000	김정환 30,000	박경국 5,000	서형교 10,000	염동현 10,000	이동성 10,000	이준동 10,000	전채남 10,000	조형준 20,000	홍민기 10,000
조승훈 5,000	김태평 10,000	정성경 20,000	강정희 10,000	김민곤 10,000	김정희 10,000	박기호 20,000	서화정 10,000	염 철 50,000	이동영 10,000	이종규 10,000	전향미 10,000	조은더교회 50,000	홍영석 5,000
조용원 50,000	김현수 5,000	정성희 5,000	강정희 5,000	김민성 10,000	김종갑 20,000	박남용 50,000	석민경 10,000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50,000	이동원 10,000	이동원 10,000	전혜민 10,000	주관수 10,000	홍미옥 30,000
조우영 10,000	김혜경 10,000	정수준 5,000	강봉근 10,000	김민제 10,000	김중구 5,000	박덕환 10,000	선영숙 10,000	50,000	이동호 10,000	이재원 20,000	전 훈 5,000	주루미 5,000	홍상순 5,000
조주원 5,000	나영일 100,000	정종렬 20,000	강종우 10,000	김방규 10,000	김동우 10,000	박동우 5,000	성낙준 5,000	오계환 10,000	이영수 10,000	이목희 10,000	이진하 5,000	주우현 5,000	홍성진 10,000
조지현 5,000	노승일 10,000	조은상 30,000	강수석 10,000	김병구 5,000	김종문 20,000	박동호 50,000	성수희 10,000	오두영 10,000	이목희 10,000	이진권 10,000	이진권 10,000	주재열 10,000	홍성복 10,000
주승순 5,000	다물홍방 100,000	조은희 20,000	강승일 20,000	김광수 10,000	김준순 10,000	박명기 10,000	성열한 10,000	오만순 30,000	이무철 20,000	이진실 10,000	이진실 10,000	주현기 10,000	홍숙희 20,000
주영식 10,000	대전둔광성결교회	조정아 20,000	강승진 10,000	김병준 50,000	김종식 30,000	박우영 10,000	손경일 10,000	오문택 50,000	이미래 5,000	이현웅 10,000	정계원 10,000	주희옥 5,000	홍 의 10,000
주원섭 5,000	51,500	조향미 10,000	강영록 10,000	김보연 5,000	김종현 20,000	박문식 30,000	손경환 10,000	오선연 5,000	이민영 10,000	이창재 10,000	이창재 10,000	지선경 5,000	홍재표 10,000
최경미 10,000	도규권 30,000	조형준 10,000	강이석 30,000	김상수 5,000	김종혁 10,000	박미란 10,000	손광우 10,000	오성수 20,000	이 병 10,000	이창훈 10,000	정근교 10,000	지용수 50,000	홍준석 10,000
최광림 10,000	류연석 10,000	홍은더교회 50,000	강정훈 30,000	김주영 20,000	김상근 50,000	박미화 10,000	손태현 20,000	오세호 10,000	이병동 10,000	이재민 10,000	정기석 5,000	지준호 10,000	황대연 100,000
최규원 5,000	문경숙 40,000	진판스님 5,000	강희갑 10,000	김상득 20,000	김상득 20,000	박민선 50,000	손영주 10,000	오소영 30,000	이병재 10,000	이찬환 30,000	정명준 20,000	진상호 10,000	황대철 10,000
최기천 5,000	문 민 5,000	진양숙 20,000	공은영 10,000	김상범 30,000	김상범 30,000	박병우 10,000	손진책 10,000	오수경 5,000	이상범 5,000	이종욱 5,000	정미영 10,000	차익수 10,000	황영필 10,000
최양옥 20,000	문상규 2,000	채우혁 10,000	김중수 10,000	김상수 10,000	김상수 10,000	박병식 30,000	송두현 30,000	이상형 10,000	이상재 10,000	이태주 10,000	정 민 5,000	차원애 10,000	황성주 30,000
최영자 10,000	문석규 1,000	천연희 30,000	곽 현 10,000	김상식 10,000	김중호 30,000	박병우 10,000	송상용 10,000	이준희 10,000	이상주 30,000	이 한 10,000	이상주 30,000	차형철 20,000	황재성 10,000
최용식 20,000	문성권 30,000	최귀철 10,000	국무도 10,000	김상운 5,000	김지선 20,000	박복영 10,000	송상운 10,000	오창욱 10,000	이상학 10,000	이해동 10,000	정성민 10,000	채병철 10,000	황중철 10,000
최을규 10,000	최수희 10,000	최수희 30,000	구수영 10,000	김진현 10,000	김진현 10,000	박상용 50,000	송영환 10,000	이형석 20,000	이상호 20,000	이현석 10,000	이현석 10,000	정서민 10,000	황성주 10,000
최인엽 10,000	박계용 20,000	최어진 10,000	구영주 10,000	김석항 5,000	김진현 10,000	박상욱 50,000	송운학 20,000	이상훈 10,000	이상훈 10,000	이현숙 5,000	이현숙 5,000	정수근 10,000	황재성 10,000
최재문 10,000	박나경 25,000	최은준 10,000	구은경 10,000	김진명 5,000	김진현 9,000	박상일 20,000	송유실 40,000	오화선 10,000	이선규 10,000	이현수 100,000	이현수 100,000	정수희 5,000	황성주 10,000
최정환 5,000	박미경 20,000	하세연 20,000	구정희 20,000	김선배 10,000	김선배 10,000	박상현 10,000	송은지 10,000	오창이(남혜)	이선주 10,000	이현우 50,000	이현우 50,000	최병률 10,000	황성주 10,000
최종대 5,000	박상일 10,000	하태성 120,000	구종모 10,000	김선창 10,000	김창연 10,000	박석양 10,000	송재천 10,000	왕정찬 5,000	이선호 5,000	이현주 20,000	이현주 20,000	최병률 20,000	홍기호 10,000
최종철 5,000	박성림 10,000	한국화학연구원	국민호 20,000	김설자 10,000	김태성 10,000	박선숙 5,000	송재천 10,000	우성호 10,000	이선화 10,000	이혜란 5,000	이혜란 5,000	정연실(송경평)	강대원 10,000
최준수 10,000	박은영 20,000	권병오 70,000	권병오 10,000	김성렬 10,000	김태순 20,000	박성준 10,000	송정배 10,000	우중호 10,000	이상민 10,000	이혜란 10,000	이혜란 10,000	정연실(송경평) 100,000	최세문 20,000
탁병섭 20,000	박재규 100,000	한덕섭 100,000	권보미 10,000	김성봉 40,000	김희경 10,000	박성찬 10,000	송정호 10,000	원종남 10,000	이상주 10,000	이혜원 10,000	이혜원 10,000	정연웅 10,000	최수진 5,000
한상만 10,000	박재환 10,000	한원택 50,000	권숙희 5,000	김상수 10,000	김희성 10,000	박소희 10,000	송지섭 10,000	원호진 10,000	이상주 10,000	이혜정 5,000	이혜정 5,000	정연준 20,000	최순옥 10,000
한상진 5,000	박정숙 30,000	한창균 50,000	권승언 10,000	김상수 5,000	김학신 10,000	박수진 10,000	송태규 10,000	이규호 30,000	이상호 5,000	이홍돈 10,000	이홍돈 10,000	정연호 20,000	최승호 10,000
한상철 10,000	박정식 30,000	한택영 120,000	권영노 10,000	김성숙 10,000	김학진 10,000	박순성 10,000	신기호 10,000	유남길 20,000	이세민 20,000	이홍준 20,000	이홍준 20,000	정영철 10,000	최승호 10,000
하기문 10,000	박종근 10,000	허경기 30,000	권오근 20,000	김성재 20,000	김해중 5,000	박애스더 50,000	신기훈 10,000	유영희 5,000	이세준 20,000	이황복 20,000	이황복 20,000	정원우 10,000	최영림 10,000
허귀석 10,000	박종우 10,000	허설 10,000	권오훈 10,000	김행선 10,000	김행선 10,000	박영근 10,000	신대걸 10,000	유성식 10,000	이승열 10,000	이희원 5,000	이희원 5,000	정원미 5,000	최영진 10,000
허 정 5,000	박표균 10,000	현중스님 10,000	권치현 10,000	김성철 10,000	김현 50,000	박영철 10,000	신동석 10,000	유승주 50,000	이숙자 5,000	이희종 5,000	이희종 5,000	정은진 20,000	최영희 10,000
현정희 10,000	배병용 40,000	황성우 50,000	권현진 10,000	김성희 5,000	김현성 10,000	박오순 10,000	신동창 20,000	유시희 10,000	이숙희 5,000	이희택 50,000	이희택 50,000	정인성 10,000	최우정 10,000
홍성기 10,000	배민기 2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김현진 10,000	김소영 10,000	김현진 10,000	박용권 20,000	신동해 5,000	이원희 10,000	이승근 20,000	임강택 20,000	임강택 20,000	정인준 50,000	최유식 5,000
홍성근 20,000	백낙환 1,000,000	우리동포	김형중 5,000	김소희 10,000	김형중 5,000	박원규 10,000	신상문 5,000	왕정찬 5,000	이승만 10,000	임광호 30,000	임광호 30,000	정재민 10,000	최은서 5,000
황권주 5,000	사랑의재닐	박선오 30,000	김태성 10,000	김수암 10,000	김태성 10,000	박은하 5,000	신수익 10,000	우성호 10,000	이승열 20,000	이승열 20,000	이승열 20,000	정재환 10,000	최정희 10,000
황금철 2													

후원자 명단

김근섭	20,000	유재욱	5,000	한상진	5,000	박표균	10,000	한국화학연구원	구국모	10,000	김상득	20,000	김주하	10,000	박미화	10,000	손광우	20,000	오석연	5,000	이명수	10,000	이지원	20,000	전채남	10,000		
김근순	10,000	유항덕	5,000	한상철	10,000	방석환	10,000	한덕섭	100,000	구수영	10,000	김상범	30,000	김주호	30,000	박민선	50,000	손덕현	20,000	오성수	20,000	이복희	10,000	이지하	5,000	전항이	10,000	
김기근	5,000	유희권	5,000	함기문	10,000	배영웅	40,000	한원택	50,000	구영주	10,000	김상수	10,000	김준석	20,000	박병우	10,000	손영주	10,000	오세호	10,000	이무철	20,000	이진권	10,000	전혜린	10,000	
김기동	10,000	육근범	10,000	허귀석	10,000	배인기	20,000	한창균	50,000	구은경	10,000	김상식	10,000	김준현	100,000	박병섭	30,000	손진책	10,000	오성영	30,000	이미래	5,000	이진섭	10,000	전 훈	5,000	
김동립	20,000	윤업석	10,000	허정	5,000	백낙환	1,000,000	한창근	50,000	구정희	20,000	김상운	5,000	김중수	10,000	박병우	10,000	송두현	30,000	오수경	5,000	이민영	10,000	이찬우	10,000	정경훈	10,000	
김동우	50,000	이강찬	5,000	한정희	10,000	사람의재널		한하늬	10,000	구중모	10,000	김석진	10,000	김중호	30,000	박복영	10,000	송상용	10,000	오수형	10,000	이병	10,000	이찬용	10,000	정계태	10,000	
김두환	10,000	이경래	10,000	홍성각	10,000	5,000,000		허경기	30,000	국민회	20,000	김석창	5,000	김지선	20,000	박상용	50,000	송상운	10,000	오준희	10,000	이병동	10,000	이창재	10,000	정근	10,000	
김문혁	10,000	이규문	10,000	홍성근	20,000	송영욱	20,000	하설	10,000	권병오	10,000	김선명	5,000	김진백	10,000	박상욱	50,000	송영완	10,000	오창욱	10,000	이병재	10,000	이창훈	10,000	정근영	10,000	
김삼택	5,000	이기춘	5,000	황금칠	20,000	송민선	20,000	허인웅	10,000	권보미	10,000	김선미	5,000	김진현	10,000	박상일	20,000	송은학	20,000	오형석	20,000	이상영	5,000	이재민	10,000	정기석	5,000	
김선리	5,000	이명천	10,000	황병규	10,000	송운석	10,000	허준용	10,000	권숙희	5,000	김선배	10,000	김진현	9,000	박석일	10,000	송은지	10,000	오해근	5,000	이상주	30,000	이천환	30,000	정명준	20,000	
김성도	10,000	이명환	10,000	황영승	10,000	송준섭	10,000	현중스님	10,000	권승언	10,000	김선창	10,000	김창근	10,000	박선숙	5,000	송재석	10,000	오화선	10,000	이상학	10,000	이종욱	5,000	정민	5,000	
김수경	10,000	이민성	5,000	황지중	5,000	수원명성교회		황성우	50,000	권영노	10,000	김설자	10,000	김창연	10,000	박성기	20,000	송재천	10,000	윤침(아남회)	1,000	이상호	20,000	이태주	10,000	정상모	10,000	
김영규	20,000	이병학	5,000	황헌택	20,000	7,000,000		황승욱	10,000	권오근	20,000	김성룡	40,000	김태석	10,000	박성준	10,000	송재천	10,000	왕정찬	5,000	이상훈	10,000	이한	10,000	정성원	10,000	
김영규	5,000	이상춘	5,000				심재규	10,000	황인선	10,000	권오훈	10,000	김성수	5,000	박성찬	10,000	박성찬	10,000	송재배	10,000	우성호	10,000	이 선	10,000	이해동	10,000	정석만	10,000
김영규	5,000	이석준	10,000				심재원	10,000			권자현	10,000	김성수	10,000	박소희	10,000	박성기	20,000	송지섭	10,000	우중호	10,000	이 선	10,000	이현식	10,000	정성호	200,000
김용주	10,000	이성기	5,000	박패민			김재정	10,000	우리통표		권현천	10,000	김성재	20,000	박수진	10,000	박수진	10,000	송태규	10,000	원동호	10,000	이선규	10,000	이현수	5,000	정수현	5,000
김윤철	10,000	이양재	10,000	강병태	20,000		안규식	10,000	박선오	30,000	안규식	10,000	김성재	20,000	박 수	10,000	박 수	10,000	신강호	30,000	원준남	10,000	이선주	10,000	이현숙	100,000	정수희	5,000
김은재	10,000	이연주	10,000	강신형	10,000		안민식	10,000			안민식	10,000	김성철	10,000	박순성	10,000	박순성	10,000	신기호	10,000	원훈진	10,000	이선호	5,000	이현우	50,000	정승혜	20,000
김용근	10,000	이영수	10,000	김은향	30,000		안석희	10,000			안석희	10,000	김성희	5,000	박애스터	50,000	박애스터	50,000	신기훈	10,000	원훈진	10,000	유근호	30,000	이선화	10,000	정연실(송경평)	
김재준	5,000	이영숙	5,000	강준호	50,000		안효진	30,000			안효진	30,000	김세권	5,000	박영근	20,000	박영근	2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민	10,000	이혜란	5,000		100,000
김정기	10,000	이영환	5,000	간치남북특위	600,000		안규(양승봉)	10,000			안규(양승봉)	10,000	김소영	10,000	박영철	10,000	박영철	10,000	신동석	10,000	신동석	10,000	이성주	10,000	이혜원	10,000	정연준	20,000
김정인	10,000	이영희	5,000	고려정보통신			양하식	10,000			양하식	10,000	김수경	10,000	박원규	10,000	박원규	10,000	신동해	5,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중비	5,000	이용범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중열	5,000	이용연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중왕	5,000	이윤관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중찬	5,000	이정윤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진관	20,000	이종민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진태	10,000	이종성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창영	10,000	이주형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태환	5,000	이지용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학제	10,000	이진탁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형순	20,000	이찬권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김호식	10,000	이춘상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나정현	10,000	이한택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남궁진석	5,000	이현숙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남정강	10,000	익산호요양병원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류학웅	10,000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문용식	5,000	임규윤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문태환	5,000	장수필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민중기	10,000	장오식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귀순	10,000	전병희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만승	10,000	전한소	10,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미라	5,000	정광래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미숙	10,000	정광수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용수	5,000	정기문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용주	5,000	정동학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박윤선	10,000	정아름	5,000	3,000,000			안효정	10,000			안효정	10,000	김수경	10,000	김홍식	10,000	김홍식	10,000	신대길	10,000	신동해	5,000	이성철	10,000	이혜정	5,000	정연호	20,000

후원자 명단

주우현 5,000	홍성복 10,000	김대환 5,000	이종성 10,000	김민제 3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김광진 10,000	김우전 10,000	노정환 20,000	박항미 10,000	안병화 20,000	윤용근 10,000	이은학 10,000	임재민 10,000
주재열 10,000	홍숙희 20,000	김혁재 10,000	이주형 5,000	김성건 20,000	김원국 10,000	김구철 10,000	김원국 10,000	노재승 10,000	박현철 10,000	안상화 5,000	윤은주 20,000	아편민 5,000	임정애 10,000
주현기 10,000	홍 의 10,000	김형순 20,000	이지영 5,000	김인선 10,000	(주)창이엔지 30,000	김구현 10,000	김유경 5,000	노형래 10,000	박현희 1,000	안성근 10,000	윤재희 10,000	이원보 10,000	임춘수 20,000
주희욱 5,000	홍제표 10,000	김호식 10,000	이진탁 10,000	김정원 10,000	(주)한일 50,000	김근우 30,000	김윤기 10,000	노재영 10,000	박현희 1,000	안재봉 20,000	윤종식 10,000	이원옥 5,000	장광준 10,000
지선경 5,000	홍준석 10,000	나정현 10,000	이찬권 5,000	김종관 10,000	김복조 5,000	김금순, 이호준 40,000	김은경 10,000	류병욱 10,000	박현희 1,000	안승자 10,000	윤종원 10,000	이문상 5,000	장길수 5,000
지용수 50,000	홍희표 50,000	남정강 10,000	이춘상 10,000	김주환 50,000	강경중 20,000	김기도 10,000	김은경 3,000	류용성 5,000	박형근 10,000	안악천 30,000	윤창빈 5,000	이윤환 10,000	장문호 5,000
지준호 10,000	황계연 100,000	노희택 10,000	이현택 10,000	김현정 10,000	김경현 10,000	김기용 30,000	김은숙 20,000	류이근 10,000	박형중 30,000	안정숙 5,000	윤창섭 10,000	이은희 10,000	장민환 30,000
진상호 10,000	황대철 10,000	문용식 5,000	이현숙 10,000	다들홍방 100,000	강남준 10,000	김기원 10,000	김은혜 10,000	류주현 5,000	박해영 50,000	안정덕 5,000	윤정원 10,000	이응세 10,000	장선영 10,000
차익수 10,000	황명필 10,000	문태환 5,000	익산호요양병원 10,000	문성권 30,000	강달호 10,000	김기원 10,000	김은정 5,000	류현천 10,000	박희순 10,000	안정식 30,000	윤호철 20,000	이인덕 10,000	장순천 10,000
차현애 10,000	황성주 30,000	민총기 10,000	임규윤 5,000	박계윤 20,000	강동완 20,000	김기은 50,000	김은혜 10,000	류준호 5,000	박희운 10,000	안정훈 5,000	이강기 50,000	이강수 10,000	장영달 30,000
차형철 20,000	황재성 10,000	박귀순 10,000	임미옥 10,000	박계윤 10,000	강문구 50,000	김기은 50,000	김은희 10,000	목주승 5,000	반치범 10,000	안종금 5,000	이강희 5,000	이일선 10,000	장영준 10,000
채병철 10,000	황중철 10,000	박만숙 10,000	장수필 5,000	박미경 10,000	강신미 5,000	김기판 10,000	김응상 10,000	문경순 5,000	방양수 10,000	안종훈 5,000	이경미 5,000	이일영 50,000	장영훈 10,000
천봉실 10,000	황창규 10,000	박미숙 10,000	전병희 5,000	박재진 20,000	강성부 10,000	김길자 20,000	김익근 10,000	문근영 5,000	방재만 5,000	안종상 40,000	이경재 10,000	이정백 20,000	장영철 10,000
천정배 20,000	볼로그리드	박연규 10,000	정광래 5,000	박재규 100,000	강성구 10,000	김길철 5,000	김인선 10,000	문근재 5,000	방준일 10,000	안희성 40,000	이경희 10,000	이정원 5,000	장윤진 5,000
최경인 10,000	김대근 10,000	박용수 5,000	정광수 5,000	박성환 10,000	강승원 20,000	김나루 5,000	김일성 100,000	문미영 5,000	배대환 10,000	안광순 20,000	이국립 5,000	이재학 10,000	장재영 10,000
최문석 50,000	김찬원 30,000	박용주 5,000	정광수 5,000	배명용 40,000	강승원 10,000	김나 당 10,000	김일환 10,000	문성권 10,000	백대호 10,000	안광성 10,000	이규섭 5,000	이재희 5,000	장준용 10,000
최병륜 10,000	김준원 30,000	박윤선 10,000	정기운 5,000	상복춘수녀원 30,000	강 신 10,000	김대관 10,000	김장연 5,000	문수정 20,000	배동용 10,000	안문수 10,000	이근덕 30,000	이정세 10,000	장홍수 30,000
최병희 20,000	공용택 30,000	박윤훈 10,000	정동화 5,000	서정환 100,000	강원호 20,000	김대영 10,000	김정훈 10,000	문영식 5,000	배소영 20,000	안미아 20,000	이근태 10,000	이정수 10,000	전달수 10,000
최사라 10,000	김재기 10,000	박익근 10,000	정수범 10,000	석왕사 5,000,000	강정미 5,000	김대영 5,000	김재철 10,000	문정숙 10,000	배수현 10,000	안미화 5,000	이근행 10,000	이정숙 10,000	전미란 5,000
최세문 20,000	김현미 50,000	박중섭 10,000	정승원 5,000	송영옥 20,000	강정미 5,000	김대영 5,000	김재철 10,000	문정숙 10,000	배은혜 10,000	안우성 10,000	이금수 20,000	이정식 50,000	전병태 10,000
최수진 5,000	나선경 5,000	박중호 20,000	정인규 5,000	송영옥 20,000	강정음 10,000	김덕수 10,000	김재혁 10,000	문주연 10,000	배향란 20,000	안윤경 2,000	이귀호 10,000	이정영 10,000	전성관 10,000
최순옥 10,000	박인준 20,000	박중호 10,000	정중원 10,000	김재현 10,000	강재원 10,000	김도규 20,000	김재현 202,000	문 흥 10,000	백낙서 10,000	안인보 20,000	이귀화 10,000	이정주 10,000	전성환 10,000
최승호 10,000	방철호 20,000	박태신 10,000	정해별 5,000	심재규 10,000	강필희 5,000	김동광 10,000	김재호 10,000	민경기 20,000	변선애 20,000	안우용 10,000	이길호 5,000	이정희 5,000	전애숙 10,000
최승호 10,000	선봉유 5,000	박효열 10,000	정희선 10,000	안규식 10,000	강해경 10,000	김동근 20,000	김 정 10,000	민항학 10,000	봄미란 10,000	안진선 5,000	이남재 5,000	이준경 20,000	전영미 10,000
최영림 10,000	송정운 30,000	배선규 10,000	정홍귀 10,000	안영호 10,000	강해영 10,000	김동환 30,000	김정미 10,000	민현주 10,000	사랑의캐널 100,000	안해준 10,000	이남철 5,000	이정일 10,000	전영일 10,000
최영희 10,000	심현용 10,000	배성희 20,000	조봉관 10,000	안민식 10,000	경진TFM 20,000	김만수 20,000	김정순 10,000	박경관 10,000	서기원 30,000	안희성 10,000	이대식 10,000	이종영 10,000	전영일 20,000
최우정 10,000	이동현 10,000	방인섭 5,000	조성택 20,000	안영거스틴성 10,000	고관석 20,000	김만진 5,000	김정환 30,000	박경국 5,000	서동화 20,000	이홍철 5,000	이대호 10,000	이종우 10,000	전용운 10,000
최윤식 5,000	이한결 10,000	석상근 10,000	조승훈 5,000	오민준 10,000	고기철 10,000	김민태 5,000	김정희 10,000	박기호 20,000	서명호 10,000	염기철 10,000	이덕형 5,000	이종민 10,000	전일순 10,000
최은서 5,000	이한슬 5,000	성도경 5,000	조용원 50,000	윤여두 100,000	고명진 10,000	김명기 10,000	김종갑 20,000	박남수 20,000	서용은 5,000	염우성 20,000	이동욱 20,000	이종석 30,000	전정수 10,000
최재천 100,000	정규철 10,000	성안호 5,000	조우영 10,000	윤자영 10,000	고봉근 10,000	김영연 10,000	김중구 5,000	박남용 50,000	서성길 10,000	염규현 10,000	이동성 10,000	이종안 20,000	전정희 5,000
최정희 10,000	조두형 10,000	손삼국 10,000	조주영 5,000	윤정현 10,000	고석주 10,000	김미홍 10,000	김중구 10,000	박덕환 10,000	서영학 10,000	염동현 10,000	이동원 10,000	이종수 5,000	전정수 20,000
최진욱 10,000	한은혜 5,000	송민규 5,000	조지현 5,000	이리나 5,000	고세량 10,000	김민근 10,000	김중문 20,000	박동우 5,000	서옥주 20,000	염철 50,000	이동원 10,000	이준동 10,000	전진희 10,000
최진원 10,000	룡천목아인	송방섭 5,000	주승순 5,000	이선장 10,000	고수석 10,000	김민성 10,000	김중순 10,000	박동호 50,000	서정숙 10,000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50,000	이동호 10,000	이준희 10,000	전채남 10,000
최철영 10,000	(유)경건설 10,000	송시현 5,000	주영식 10,000	이수일 10,000	고승일 20,000	김민재 10,000	김중식 30,000	박영기 10,000	서형교 10,000	이명수 10,000	이희우 10,000	이지영 10,000	전혜린 10,000
최태자 5,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송인규 10,000	주원섭 5,000	고승진 10,000	고승진 10,000	김방규 10,000	김중현 20,000	박무영 10,000	서희정 10,000	오계환 10,000	이육회 10,000	이지원 20,000	전 훈 5,000
최필선 20,000	최효숙 20,000	신민수 5,000	최경미 10,000	고영록 10,000	고영록 10,000	김병구 5,000	김중혁 10,000	박문식 30,000	석민경 10,000	오우영 10,000	이무철 20,000	이지하 5,000	정영훈 10,000
최희승 10,000	(유)스마일기획건설 20,000	신병선 10,000	최광림 10,000	고이서 30,000	고철호 10,000	김병규 10,000	김주영 50,000	김미란 10,000	선영숙 10,000	오민순 30,000	이미래 5,000	이진권 10,000	이재민 10,000
푸른초장교회 50,000	강동현 5,000	안귀녀 5,000	최규원 5,000	고철호 30,000	고철호 30,000	김병수 10,000	김주학 10,000	박민선 50,000	성낙준 5,000	오문택 50,000	이민영 10,000	이진섭 10,000	정 근 10,000
하성환 5,000	강병수 10,000	안현숙 5,000	최기천 5,000	고철호 10,000	고철호 10,000	김병준 50,000	김주호 30,000	박병우 10,000	성열찬 10,000	오선영 5,000	이병 10,000	이찬우 10,000	정근영 10,000
하승찬 20,000	강병수 10,000	양경진 5,000	최영자 10,000	고희갑 10,000	정금나 10,000	김보연 5,000	김보연 5,000	박병우 10,000	손경민 10,000	오세호 10,000	이병동 10,000	이병동 10,000	정기석 5,000
하이시엘 2,000	강신우 5,000	양현석 10,000	최용식 20,000	공은영 10,000	정민 20,000	김삼수 5,000	김준현 100,000	박복영 10,000	손경환 10,000	오소영 30,000	이병동 10,000	이병동 10,000	정명준 20,000
하정현 5,000	강철희 10,000	오동훈 5,000	최용규 10,000	공희숙 20,000	정중필 20,000	김삼근 20,000	김중수 10,000	박성용 20,000	손광우 20,000	오수경 5,000	이상업 5,000	이상훈 10,000	정미영 10,000
한강아 3,000	강해영 5,000	오명섭 5,000	최인엽 10,000	곽 현 10,000	정태은 20,000	김상득 10,000	김중호 30,000	박성용 20,000	손영현 20,000	오수형 10,000	이상재 10,000	이재민 10,000	정민 5,000
한복희 30,000	고영삼 5,000	옥용호 30,000	최인엽 10,000	구국오 10,000	정태은 20,000	김상범 30,000	김중문 20,000	박성욱 50,000	손영주 10,000	오훈희 10,000	이상주 30,000	이천환 30,000	정상모 10,000
한덕섭 20,000	국 혁 5,000	유광택 50,000	최재민 10,000	구수영 10,000	정혜인 10,000	김상수 10,000	김중문 20,000	박성일 20,000	손진채 10,000	오창욱 10,000	이상학 10,000	이종욱 5,000	정석만 10,000
한덕희 15,000	김경년 10,000	원행복 10,000	최재민 10,000	구수영 10,000	정회인 10,000	김상식 10,000	김중문 20,000	박성일 20,000	송두현 30,000	오형석 20,000	이상호 20,000	이태주 10,000	정수근 10,000
한동휘 30,000	김공권 5,000	유미경 10,000	최중대 5,000	구영주 10,000	정회인 10,000	김상운 5,000	김중문 20,000	박선숙 5,000	송상용 10,000	오혜근 5,000	이상훈 10,000	이 한 10,000	정수현 5,000
한두희 10,000	김구진 10,000	유방울 5,000	최중철 5,000	김석진 10,000	정회인 10,000	김석진 10,000	김중문 20,000	박성기 20,000	송상운 10,000	오화선 10,000	이석운 10,000	이태동 10,000	정수희 5,000
한상근 5,000	김규진 5,000	유병철 5,000	최중수 10,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성찬 10,000	송은지 10,000	우성호 10,000	이상규 10,000	이현숙 5,000	장연섭(송경명) 20,000
한순호 5,000	김근섭 20,000	유재욱 5,000	최종철 5,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소희 10,000	송재천 10,000	우화선 10,000	이선주 10,000	이현숙 100,000	장연섭 100,000
한승업 10,000	김근소 10,000	유향덕 5,000	최종철 5,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수진 10,000	송재천 10,000	원동우 10,000	이선호 5,000	이현숙 50,000	정연용 10,000
한영숙 10,000	김기곤 5,000	유희권 5,000	최종철 5,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수진 10,000	송재천 10,000	원동우 10,000	이선호 5,000	이현숙 50,000	정연용 10,000
한윤구 10,000	김기동 10,000	육근범 10,000	최종철 5,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수진 10,000	송재천 10,000	원동우 10,000	이선호 5,000	이현숙 50,000	정연용 10,000
한정화 10,000	김동림 20,000	윤영석 10,000	최종철 5,000	김석향 5,000	정회인 10,000	김성운 5,000	김중문 20,000	박수진 10,000	송재천 10,000	원동우 10,000	이선호 5,000	이현숙 50	

조대엽	20,000	한상균	5,000	김공권	5,000	유미경	10,000	최종철	5,000	문주성	10,000	정성경	20,000
조만용	5,000	한성희	5,000	김 구	10,000	유방용	5,000	최준수	10,000	박계용	20,000	정성희	5,000
조매경	5,000	한순호	5,000	김규진	5,000	유병철	5,000	탁병섭	20,000	박계운	10,000	정수준	5,000
조석희	10,000	한승엽	10,000	김근섭	5,000	유재욱	5,000	한상만	10,000	박나정	25,000	정정옥	30,000
조선아	10,000	한영숙	10,000	김근순	10,000	유창덕	5,000	한상철	10,000	박미경	20,000	정종렬	20,000
조선영	10,000	한윤구	10,000	김기근	5,000	유희권	5,000	함기문	10,000	박미경	10,000	정창수	50,000
조성호	20,000	한정화	10,000	김기동	10,000	육근범	10,000	허귀석	10,000	박상일	10,000	정태은	10,000
조승희	10,000	한진옥	5,000	김동림	20,000	윤영석	10,000	허 정	5,000	박성림	10,000	정혜인	10,000
조신행	5,000	한창현	5,000	김동우	50,000	이강찬	5,000	현정희	10,000	박세진	20,000	정희인	10,000
조연희	5,000	함웅은	5,000	김두환	10,000	이경래	10,000	홍성각	10,000	박재준	20,000	박태준	10,000
조영상	10,000	허남순	5,000	김문혁	10,000	이금원	10,000	홍성근	20,000	박은영	20,000	조은상	30,000
조영석	10,000	허원중	10,000	김삼택	5,000	이기훈	5,000	황권주	5,000	박재규	100,000	조은희	20,000
조영식	10,000	허은이	10,000	김성도	10,000	이명천	10,000	황금철	20,000	김재완	10,000	조정아	20,000
조용진	10,000	현관송	10,000	김수경	10,000	이명환	10,000	황병규	10,000	박정숙	30,000	조항미	10,000
조 윤	5,000	현윤숙	10,000	김영규	20,000	이민식	5,000	황영숙	10,000	박장식	30,000	진관스님	5,000
조윤근	5,000	현윤식	10,000	김영균	5,000	이병학	5,000	황원택	20,000	박종근	10,000	진양숙	20,000
조응원	30,000	현윤실	10,000	김용주	10,000	이상업	5,000			박종우	10,000	진영배	300,000
조재호	10,000	현윤애	10,000	김윤철	10,000	이상준	5,000			박종원	20,000	채우혁	10,000
조정순	10,000	현중은	40,000	김은재	10,000	이석준	10,000			박표균	10,000	채연희	30,000
조종남	10,000	호영진	15,000	김응곤	10,000	이성기	5,000			방석환	10,000	최상범	20,000
조준혁	10,000	홍기호	10,000	김정기	10,000	이양재	10,000			배영용	40,000	최숙희	30,000
조중식	10,000	홍기호	10,000	김장진	10,000	이연주	10,000			배인기	20,000	최태희	10,000
조창식	10,000	홍란희	5,000	김중비	5,000	이영내	10,000			사랑의제널	5,000,000	차과협회	1,000,000
조태현	5,000	홍민기	10,000	김중열	5,000	이영수	10,000			김대현	20,000	하세연	20,000
조한민	10,000	홍명석	5,000	김중왕	5,000	이영숙	5,000			서장환	100,000	한덕섭	100,000
조한범	10,000	홍미옥	30,000	김종찬	5,000	이영환	5,000			석왕사	5,000,000	한원택	50,000
조 현	5,000	홍상운	5,000	김진관	20,000	이영희	5,000			송영욱	20,000	한창균	50,000
조현영	10,000	홍성근	10,000	김진태	10,000	이용범	10,000			송민선	20,000	한하리	10,000
조현호	20,000	홍성복	10,000	김창영	10,000	이용연	10,000			송용석	10,000	허경기	30,000
조영준	20,000	홍숙희	20,000	김태환	5,000	이윤관	5,000			송준섭	10,000	허 설	10,000
주관수	10,000	홍 의	10,000	김희제	10,000	이정운	10,000			심재구	10,000	허인용	10,000
주로미	5,000	홍제표	10,000	김형순	20,000	이종민	10,000			심재원	10,000	허준용	10,000
주우현	5,000	홍준석	10,000	김호식	10,000	이종성	10,000			심재정	10,000	현중스님	10,000
주재열	10,000	황계연	100,000	남정현	10,000	이주형	5,000			안규식	10,000	홍현기	10,000
주현기	10,000	황대철	10,000	남창강	10,000	이지용	5,000			안동호	10,000	화학연구원	70,000
지선경	5,000	황명필	10,000	류희웅	10,000	이진택	10,000			안민식	10,000	황성우	50,000
지용수	50,000	황성주	30,000	문용식	5,000	이찬권	5,000			안홍진	30,000	황승욱	10,000
진상호	10,000	황재성	10,000	문태환	5,000	이춘삼	10,000			양규(양승봉)	10,000	황인선	10,000
차연애	10,000	황중철	10,000	민중기	10,000	이현택	10,000			양어가스틴성	10,000		
차형철	20,000	황창구	10,000	박귀순	10,000	이현숙	10,000			양화식	10,000		
채병철	10,000	lgcs6월	531,000	박민승	10,000	익산효양병원	10,000			양효정	10,000		
천봉실	10,000	lgcs7월	548,000	박미라	5,000	김기령	10,000			오동일	30,000		
천정배	20,000			박미숙	10,000	김나눔	10,000			오민준	10,000		
최경인	10,000	볼고그라드		박연규	10,000	김동천	100,000			오승현	10,000		
최문석	50,000	강대균	10,000	박우수	5,000	김만호	20,000			위대현	20,000		
최병렬	10,000	강춘원	30,000	박용주	5,000	김명신	10,000			위은광	20,000		
최병희	20,000	공용택	30,000	박윤선	10,000	김명진	10,000			유명량	10,000		
최사라	10,000	김재기	10,000	박윤훈	10,000	김민제	30,000			유승희	10,000		
최세문	20,000	김현미	50,000	박인곤	10,000	김선희	10,000			유연미	10,000		
최수진	5,000	나선경	5,000	박종섭	10,000	김성건	20,000			윤기훈	10,000		
최순욱	10,000	방철호	20,000	박종호	20,000	김용민	5,000			윤여두	100,000		
최승호	10,000	선봉구	5,000	박종호	10,000	김용재	10,000			윤자영	10,000		
최승호	10,000	송정윤	30,000	박태신	10,000	김우중	20,000			윤정현	10,000		
최영림	10,000	심현웅	10,000	박종열	10,000	김인선	10,000			윤지현	10,000		
최영희	10,000	이동현	10,000	배선규	10,000	김정미	10,000			이리나	5,000		
최우정	10,000	이한결	10,000	배성희	20,000	김정원	10,000			이병진	10,000		
최윤식	5,000	이한솔	5,000	방인섭	5,000	김정은	10,000			이선장	10,000		
최은서	5,000	정극철	10,000	석상근	10,000	김종관	10,000			이선정	5,000		
최정희	10,000	조두형	10,000	성도경	5,000	김주환	50,000			이수정	10,000		
최진욱	10,000	최준혁	10,000	성원호	5,000	김진경	20,000			이영동	10,000		
최진원	10,000			손삼국	10,000	김진현	5,000			이영선	10,000		
최철영	10,000	통천육아원		송민규	5,000	김태평	10,000			이용선	100,000		
최태자	5,000	(유)명건설	10,000	송방섭	5,000	김현수	5,000			이말영	50,000		
최필선	2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송인규	10,000	김현정	10,000			이정기	10,000		
최효숙	10,000			신민수	5,000	김혜경	10,000			이정미	10,000		
최희송	10,000	(유)스마일기획건설		신범선	10,000	노승일	10,000			이정훈	10,000		
푸른초장교회	50,000			신현섭	10,000	다물홍방	100,000			이재현	10,000		
하성환	5,000	강동혁	5,000	안귀녀	5,000	대전둔광성결교회				이지은	10,000		
하승장	20,000	강병수	10,000	안현성	5,000		25,000			이춘도	10,000		
하아시엘	2,000	강신우	2,000	양경진	5,000	도규현	30,000			이현재	10,000		
하정현	5,000	강철희	10,000	양현석	10,000	류연석	10,000			이현주	10,000		
한강아	3,000	강혜영	5,000	오동훈	5,000	문경숙	40,000			임문희	10,000		
한녹희	30,000	고영삼	5,000	오영섭	5,000	문 민	5,000			장범식	10,000		
한덕섭	20,000	곽영한	10,000	옥용호	30,000	최인엽	10,000			전범권	10,000		
한덕희	15,000	국 혁	5,000	온강민	5,000	최재환	10,000			정금나	10,000		
한동휘	30,000	김강희	5,000	우광택	50,000	최정환	5,000			문성권	30,000		
한두희	10,000	김경년	10,000	원형복	10,000	최종대	5,000			문성욱	20,000		

북한 수재민돕기 긴급 캠페인

“(이번 수해)피해는 3년 전의 수해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 김대혁 함경북도 신흥군인민위원회 소장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 중)



최근 일주일간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북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경우 8월 21일에만 3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14명 사망, 6만 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만 5천여 가옥이 침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7월 말 내린 폭우는 개성,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등 북한 전역을 휩쓸고 이로인해 30,000ha의 농경지 침수, 6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개성의 경우 5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4일, 북한 당국이 평양주재 UN대표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볼때, 알려진 상황보다 피해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긴급 북한 수재민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차로 옥수수, 밀가루 등 긴급 식량을 단동-신의주, 개성육로로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 의약품 및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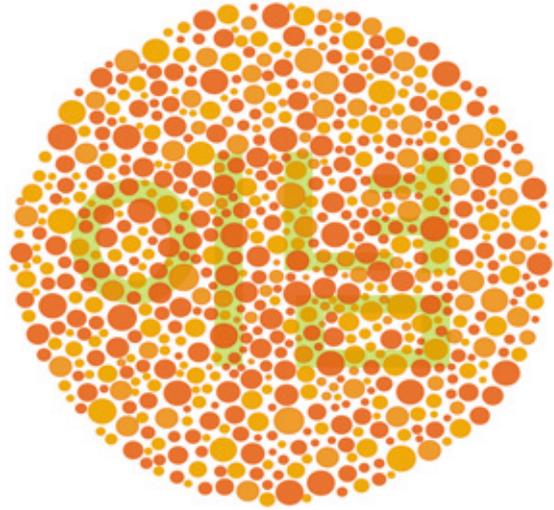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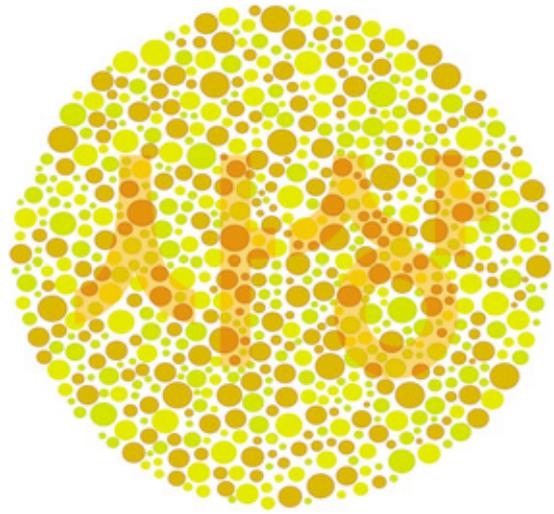
북한 수재민돕기 긴급 캠페인 모금계좌

신한은행 100-013-015721(예금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금 기탁 문의

전화 : 02)734-7070 팩스 : 02)734-8770 www.ksm.or.kr / ksmseoul@ksm.or.kr

※ 물품후원은 사전전화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아이들은 정치색맹입니다.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배고픈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이들이 밝게 자라야 남과 북의 미래도 밝습니다.

※ 본 광고는 이재석광고연구소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